

관리기능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 A Study on System Approach To Managerial Functioning —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 아동학과

부교수 이 기 영

서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조 영 희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Ki Young Lee

Dept. of Home Management Seo-Won University

Instructor Young Hee Cho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system model for family resource management.

The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a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the sample of 650 wives living in Seoul and Daeje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ean,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 were shown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ree measure of satisfaction -economic concern, financial satisfaction, general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contextual variables, perceived resource adequacy, planning style.

2) Planning style measures provided a unique contribution to the explanation of wives' satisfaction when contextual variables and perceived resource adequacy were controlled, but the degree of contribution was weak.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한전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I. 서 론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데에는 우선적으로 가정생활이 그 바탕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생활이 어떻게 매일매일 유지되고, 각 가정이 어떻게 변화에 대처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화의 진전으로 주택문제, 과소비문제, 노후대책문제 등과 같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은 결국 각 개별가정에 귀결되어 논의되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가정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 운영이 되며, 주변의 여러 환경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생활의 개선을 목표로 가정관리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대체적인 경향은 가정관리의 제 측면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의 성격을 띠어 가정의 관리적 기능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진단하에 1970년대의 체계적 접근의 도입은 가정관리행동의 연구에 도약의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즉 이러한 방법의 도입으로 가정관리요소간의 논리적 관계가 구조화되었으며,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어 가정관리의 역동성에 대한 설명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Deacon과 Firebaugh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체계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최근들이 이들 모형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 접근의 유용성이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Maloch와 Deacon(1966)의 연구를 필두로 체계모형의 투입요소, 변환과정의 요소, 산출요소를 달리 하는 여러 실증 연구들(Newton, 1979; Guadagno, 1981; Heck, 1983; 두경자, 1990; 최동숙, 1992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대체로 모형이 지지되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또 지지되었더라도 변환과정이 산출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가정관리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심을

두는 바, 금전자원의 관리는 가계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정적인 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가계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는 우선적으로 두가지 측면, 즉 금전자원의 부족문제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방법에 관한 문제 — 다시 말하면 가계관리의 문제 — 라고 할 수 있다. 가계관리란 가족의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욕구와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간에 균형을 꾀하고, 미래의 재정적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가족의 요구와 자원을 적절히 중재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체계적 모형의 수용성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가계관리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계관리 측면에 체계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체계모형의 변환과정요소로서 계획행동 유형을 설정하여, 주부의 개인 및 가족관련요인, 자원적정지가, 계획행동유형, 만족감간의 관계가 체계적 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개인 및 가족관련요인과 자원적정지가가 통제될 때 계획행동유형이 관리적 산출의 설명에 어느 정도 독자적인 기여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자원관리체계

어떤 현상을 파악하고자 할 때 관련 요인들을 단편적으로 파악했을 때 적지않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요인들과 상호 관련되어 행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각 요소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체계적 접근법은 바로 요소(부분)들을 전체성과 관련지우는 틀로서, 가족들의 자원관리를 총체적으로 조망하여 관리행동의 개선 및 관리행동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체계적 모형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모형이 가족들이 경험하는 갈등을 수용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Sztompka(1974)는 사회현상에 대한 체계적 모형의 논의에 있어서 체계적 모형은 충분히 갈등을 다룬다고 하였으며, 최호숙과 문숙재는(1991)는 이런 가족 갈등문제의 체계모형에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체계적 모형의 적용과 그 한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관리에 적용시킨 대표적인 체계적 모형은 Paolucci, Hall과 Axinn(1976), Gross, Crandall과 Knoll(1980), Deacon과 Firebaugh(1988)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리고 특히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 모형은 변환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경험적인 유용성을 갖는다고(Heck, 1983) 지적되었으며, 실제로 실증 연구들의 대부분이 Deacon과 Firebaugh의 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체계론에 입각한 관리체계의 구성요소는 투입, 변환과정, 산출, 피드백으로 이루어진다. 투입은 관리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소로, 요구(demand)와 자원(resource)으로 구분된다. 요구는 관리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며, 자원은 이러한 요구의 달성을 위해 쓰이는 수단이다.

변환과정은 관리행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서 투입요소인 요구와 자원을 증재하며 투입과 산출을 매개하는 과정이며 계획수립과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계획수립이란 매일의 생활에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으로(Alexander, 1986), 가정관리측면에서 볼 때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의 행동방향을 결정짓는 것으로(김의숙, 이기영과 최은숙, 1990), 관리에 있어서 통합적이고, 필수적이며, 관리의 독자적인 과정인 것이다.(Rubio, 1987) 이것은 미래에 대한 조망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미래의 결과를 다루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계획수립의 성패는 곧 관리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Buckley(1967)는 가족의 평형유지를 위한 행동유형—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을 제안하였으며, 가정을 하나의 사회적 체계로 보고 사회적 체계란 계속 유지되고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구조, 조

직,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구조의 기본적인 변화는 그 구조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정관리학자들은 계획수립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계획수립행동을 유형화시켜 파악하고자 하였다. Beard와 Firebaugh(1978)는 계획행동을 Buckley가 제안한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Buehler와 Hogan(1986)은 목표중심형과 자원중심형으로 구분하였다.

실천요소인 수행은 수립된 계획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이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조정과 통제를 통해 계획안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주요한 것은 역시 수립된 계획 자체인 것이다.

산출은 변환과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며, 자원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다음의 관리과정 또는 환경에의 투입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Heck(1983)은 이러한 산출이 동일한 차원에서 파악되기 보다는 오히려 도구적인 산출과 최종의 산출로 구별된다고 말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은 체계적 모형의 경로모형분석을 통해 실제화되고 있다.

2. 계획행동유형

체계적 접근은 구성요소 및 요소간의 상호관련에 관심을 둬으로써 변환과정의 매개역할을 설명하는데에 유용성을 갖는다. 변환과정이란 투입과 산출의 조화를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행동들로서, 특히 계획행동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즉 계획행동이란 가족의 요구와 자원을 증재하고자 행동의 지침과 순서를 정하는 행동으로서,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Deacon과 Firebaugh(1988)는 "계획이란 인지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상상하는 과정으로 미래의 표준과 행동의 순서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가정관리행동의 합리성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계획행동은 시간의 지향이나 실현성, 정밀도, 체계적인 관점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유형화가 가능하

며, 이것은 계획행동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Beard와 Firebaugh(1978)는 계획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 경계의 유지, 표준설정과 행동 순서화, 현재 체계에의 몰입정도, 그리고 새로운 요구에 대한 적응 정도의 네차원에 따라 계획행동의 유형을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분류하였다. Deacon과 Firebaugh(1988)에 따르면, 안정지향적 체계는 현재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반면 자원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이나 기회가 거의 없고 행동의 순서를 정할 때에도 융통성이 낮다. 한편 변화지향적 체계는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새로운 목표를 수용하고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또한 활발하며, 행동의 순서를 정할 때에도 융통성이 있고 적응력이 뛰어나다. 계획행동은 위의 두가지 유형 외에 무작위적 유형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것을 되는대로 놓아 두는 것'이 계획적이라고 표현될 만큼 계획은 유동적이며 비구조적인 특성을 지니는 행동유형이다.

Buehler와 Hogan(1986)은 계획의 유형을 목표중심적 유형, 자원중심적 유형, 제약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목표중심적 유형은 가족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자원구조의 한계를 따르기 위해 요구를 미루거나 제거하고 표준을 낮춤으로써 요구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어 계획행동을 한다. 자원중심적 유형은 오히려 요구구조에 맞추기 위해 자원을 창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자원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행동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Beard와 Firebaugh의 유형과 관련시켜 본다면 목표중심적 유형은 안정지향적 유형과, 자원중심적 유형은 변화지향적 유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약적유형은 가족의 자원이 제한되거나 부적절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계획행동유형으로, 이 유형의 특징은 반작용, 제약, 현재지향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유형은 일반적인 계획의 의미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류는 체계적 모형에 입각하여 변화의 수용구조를 밝힘으로써 가정관리행동을 명료화시켜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uehler와 Hogan은 이 계획행동의 유형이 편부모

가계의 만족도 — 경제적 우려, 재정적 만족, 사회심리적 만족 — 의 차이를 의미있게 설명하는지 살펴본다. 그 결과 편모 가계의 경우 제약적 유형이 경제적 우려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자원중심적 유형이 사회심리적 만족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계획행동유형이 경제적 우려와 사회심리적 만족도 변수의 설명에 독자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Buehler와 Hogan의 계획행동 유형은 가족의 관리 기능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조사대상이 편부모인 바, 편부모 가계의 경우 일반가계와는 다른 요구나, 자원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유형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가계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혜령, 이기영과 조영희(1992)는 Buehler와 Hogan의 연구에 기초하여 일반가계에서의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유형을 탐색하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도시 주부의 경우 목표중심적 계획행동유형이 우세함을 발견하였으며, 각 행동유형별 영향요인으로는 자원중심적 유형에는 건강 및 대인적자원 적정지각과 남편의 직업이, 제약적 유형에는 금전자원적정지각이, 목표중심적 유형에는 막내자녀연령 및 금전자원적정지각이 각각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유형에 있어 관리자가 자원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3. 가족자원관리 체계모형 검증에 관한 선행연구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모형을 적용하여 많은 학자들이 관리행동을 측정함으로써 체계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Maloch와 Deacon(1966)의 연구는 체계모형 검증의 초기 연구로서 취약하기 쉬운 변환과정, 특히 계획수립행동을 구체화시킨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산출부분을 제외시켜 체계모형의 검증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Newton(1979)은 산출인 목표달성, 관리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대한 투입요소와 변환과

정인 관리행동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체계적모형을 경로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체계적모형에 대한 검증의 초기연구로서 산출요소를 세분화하여 산출의 차원이 분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체계모형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Heck(1983)은 발전적인 체계모형의 구성을 위한 예비검증에 목적을 두고 각 요소간의 관계를 측정간 결과 변환과정의 미약함이 드러났고,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 모형에 대한 엄격한 실험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투입요소로서 가정기구, 새가구, 주택, 레크레이션장비, 휴가, 소비요구 등 6개 항목에 걸쳐 목표지향성지수를 사용하였고, 변환과정으로는 계획자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가정의 청결, 식사, 세탁의 결과, 자유시간의 양 등 산출내용 10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투입부분을 요구와 자원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측정하고 있다.

Mueller(최동숙, 1992 재인용)와 Swift(최동숙, 1992 재인용)는 관리적 체계모형을 가정의 금전관리와 관련시켜 연구하였다.

Buehler와 Hogan(1986)은 Deacon과 Firebaugh의 모형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투입요소에는 관계적요인과 관련된 변수로 가계소득, 교육수준, 직업지위, 전일제 취업, 시간제 취업, 주택소유, 가구수를 포함시켰고, 자원적요인과 관련된 변수로 시간, 주거, 공간, 가족존중, 협동, 친척들의 사회적지원 등에 대한 적정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과정요소로서는 계획행동유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Beard와 Firebaugh의 행동유형을 수정하여 자원중심적 유형, 목표중심적 유형, 제약적 유형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산출요소로서는 세가지의 만족도 변수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즉 경제적인 우려, 재정적인 만족, 사회심리적 만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요소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계획행동유형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간의 중재역할이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하였으나 그 기능이 미약함을 나타내었다.

국내에도 체계적인 접근이 가정관리 분야에 도입됨으로써 가정관리행동의 연구에 많은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시도가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두경자(1990)는 Maloch와 Deacon, Newton, Heck의 연구를 기초로 가정관리의 체계모형의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체계모형의 검증을 시도한 기존의 연구들을 기초로 투입요소를 자원과 요구로 나누고 변환과정변수를 계획과 수행으로 나누고 계획의 내용에 표준설정, 융통성, 명료성, 복잡성, 실현가능성, 행동의 중복성을, 수행의 내용에는 점검, 조정, 촉진을 포함시키는 등 포괄적인 체계모형을 구성하여 관리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분석의 결과 체계모형을 지지하였다.

최동숙(1992)은 투입요소를 객관적 자원과 자원인 지수준으로 구성하고, 과정요소로는 가정자원관리행동을 유형화하여 측정하였다. 행동유형은 Beard와 Firebaugh의 안정지향형, 변화지향형의 유형화를 선택하였고, 산출은 포괄적인 가정생활 만족도로 하였다. 분석 결과 채택된 변수들은 체계모형을 지지하였다.

김연정과 김순미(1991), 양정선과 김순미(1992)의 두 연구는 가계 금전관리와 관련시켜 체계모형을 검증하였는데, 연구 결과 체계모형이 지지되는 되었으나 변환과정의 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살펴보면 구성요소들에 포함된 변수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투입, 과정, 산출로 구성된 연구모형들은 미국 가정의 경우나 우리나라 가정에 있어서 대체로 지지되고 있는 셈이다. 체계모형은 투입요소가 과정요소에 영향을 주고, 과정요소는 산출요소에 영향을 줌으로써 과정요소의 매개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투입요소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과정, 즉 관리행동이 산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여기에 가정관리의 연구에 의의가 부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산출요소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와의 관계를 더욱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관리과정변수의 탐색을 통해 관리 체계모형의 정교화 내지 보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정관리의 주담당자인 주부를 대상으로 Deacon과 Firebaugh가 제시하는 가정관리체계모형에 근거하여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변수, 계획행동유형 변수와 만족도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와 자원적정지각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계획행동유형 변수가 만족도 변수의 설명에 독자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에 체계적 접근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투입변수인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및 자원적정지각 변수와 변환과정 변수인 계획행동유형변수와 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제외시킨다.¹⁾

각 요소별 변수의 선정은 Buchler와 Hogan의 연구 및 선행연구에 기초를 두었다. 특히 Buehler와 Hogan의 연구는 계획행동유형을 자원중심적—목표중심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자원과 요구를 중재하는 계획행동의 요소 중재과정을 명료화시키고 있어 본 연구의 계획행동유형화에 사용되었다. 투입요소는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와 자원적정지각변수로 구성하였다.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에는 막내자녀연령, 주부의 취업상태, 자녀수, 주부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주부의 연령, 내구재 보유수를 포함시켰으며, 자원적정지각변수에는 주거자원, 건강자원, 시간자원, 금전자원, 대인적자원, 지식자원, 지역사회자원이라는 7개 자원영역에 대한 적정지각정도를 포함시켰다. 특히 자원적정지각변수는 인간행동의 연구에 있어서 제기된 환경 그 자체보다는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이 인간의 행동에 중요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투입변수로 채택하였다. 즉 Heider(Rowland, Dodder과 Nickols, 1985 재인용)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원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실

보다는 오히려 지각된 환경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실증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체계의 변환과정은 계획행동유형으로서 자원중심적유형, 목표중심적유형, 제약적 유형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만족도 변수는 경제적 우려, 재정 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의 세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가정관리체계의 분석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세가지 하위영역별 만족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변수, 계획행동 유형변수가 만족도 변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연구문제 3〉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변수의 효과를 통제할 때 계획행동유형은 만족도 변수의 설명에 독자적인 기여를 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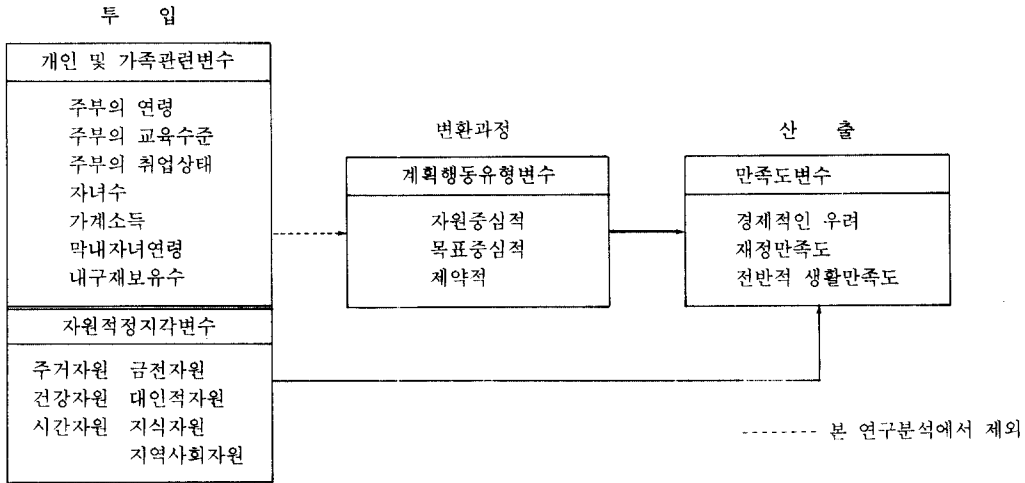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척도의 구성

① 계획행동유형

계획행동유형의 척도는 구혜령 등(1992)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Beard와 Firebaugh는 경제의 유지, 표준설정과 행동순서화, 현재 체계에의 몰입정도, 그리고 새로운 요구에 대한 적응정도에 따라 계획행동유형을 변화지향형, 안정지향형, 무작위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척도에 기초하여 Buehler와 Hogan(1986)은 계획행동을 하는데 투입요소인 자원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요구를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자원중심적 유형, 목표중심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인 계획의 의미에서는 벗어나지만 가족자원의 제약때문에 이루어지는 행동유형을 제약적 유형이라

1) 본 연구 및 구혜령 등(1992)의 연구는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연구”라는 제목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로, 구혜령 등의 연구에서 투입요소와 변환과정의 관계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짐.



〈연구 모형〉

고 하여 계획행동유형에 포함시켰다. Buehler와 Hogan의 척도는 체계적 모형의 구조와 관련하여, 과정요소인 행동이 투입요소, 즉 요구와 자원이라는 두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행동 유형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구혜령 등의 척도는 자원중심적 유형은 4문항으로 구성되고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43이며, 목표중심적 유형은 6문항으로 구성되고 신뢰도 계수는 .51이며, 제약적 유형은 4문항으로 구성되고 신뢰도 계수는 .50으로 총 14문항의 척도로 재구성된 것이다.

② 자원적정지각 척도

자원적정지각 척도는 조영희(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owland, Dodder와 Nickols(1985)의 척도를 기초로 우리나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척도를 개발한 것이다. 요인분석의 결과 8개 자원 영역에 대한 28문항의 자원적정지각 척도를 개발하였다. 8개 자원 영역은 주거자원, 건강자원, 시간자원, 금전자원, 사회적지원자원, 심리적유대자원, 지식자원, 지역사회자원이다.²⁾

본 연구에서는 위의 척도를 사용하되 자원의 영역

을 조정하였다. 즉 사회적지원자원과 심리적유대자원을 통합하여 "대인적자원"이라는 하나의 자원영역으로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③ 경제적 우려

이 척도는 흔히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 대한 우려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실직, 생활수준의 유지, 가족들의 요구, 질병·사고·이혼·사망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태, 자녀들의 교육비나 결혼비용, 노후대책, 공과금이나 차용한 돈, 주택마련 등에 대한 염려, 혹은 우려를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모두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응답은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3점 리커트형 척도로 만들었으며, 그리고 "정말 그렇다"에는 3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을 주어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④ 재정 만족도

Davis와 Helmick(1985), Beutler와 Mason(1987)은 가정의 경제적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Metzen의 주관적 재정안정도 척도를 사용하였고, Titus, Fanslow

2) 자원적정지각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주거자원은 .82, 건강자원은 .72, 시간자원은 .78, 금전자원은 .72, 대인적자원은 .75, 지식자원은 .76, 지역사회자원은 .55로 나타났다.

와 Hira(1989)는 재정만족도 측정에 평균지불능력, 순자산 만족이라는 재정적 안정 개념을 사용하였다. Wilhelm, Iams와 Rudd(1987)는 소득적정도, 생활수준 만족도, 현재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지각을 재정적 안정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Crawford와 Beutler(1983)는 생활수준, 생활표준에 대한 만족도, 위험에 대한 준비도를 재정안정으로 측정하였다. 김연정과 김순미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기초로 주관적 재정안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재정만족도와 재정안정도의 개념을 유사한 내용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Davis와 Helmick은 재정 만족도 척도에 소비수준에 대한 만족, 자산에 대한 만족,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만족, 긴급사태에 대한 준비에 대한 만족, 재정적인 안정에 대한 만족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재정 만족도 척도에 현재 생활의 소비수준, 현재의 가계 소득수준, 가계 저축수준, 가계 자산, 부부 노후대책, 긴급사태에 대한 준비의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까지 5점 리커트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만족”에는 5점을, “매우 불만족”에는 1점을 주어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⑤ 전반적 생활만족도

Olson, McCubbin과 그의 동료들(1983)은 ‘생활의 질’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생활의 질’ 척도는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 척도는 Olson 등의 척도 중 부모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척도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자녀들에 대한 만족, 친척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 건강에 대한 만족,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성취에 대한 만족으로 모두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7가지의 얼굴 표정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1번 응답(가장 웃는 얼굴)에는 7점을, 7번 응답(가장 찡그

린 얼굴)에는 1점을 주어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가족자원의 주된 관리자는 대체로 주부이므로 조사대상을 주부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가족의 자원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자녀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본 대상은 자녀를 1인 이상 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로 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과 대전, 2지역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서울의 국민학교(2개교), 중학교(3개교), 고등학교(2개교)의 학생 어머니 330명, 대전의 국민학교(3개교), 중학교(2개교), 고등학교(2개교)의 학생 어머니 320명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1991.12.2-14일 까지 었다. 조사도구로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배포된 질문지 650부 중 599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부실하게 기재된 39부를 제외하고 56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둘째,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 변수, 계획행동유형 변수 그리고 만족도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적용시켰다.

셋째, 투입변수를 통제할 때 계획행동유형이 만족도 변수에 미치는 독자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주부의 연령 분포는 20대에서 60대까지 었으며, 30·40대 연령의 주부가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사가 전체의 75.6%였고, 초급·전문대 졸업은 6.2%,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상은 18.2%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71-120만

원인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고, 70만원 이하는 21.0%, 121-200만원은 27.0%, 201만원 이상의 12.5%였다. 주부의 취업여부는 전업주부가 50.5%, 시간제 취업의 경우는 31.0%였으며, 전일제 취업주부는 18.5%로 나타났다. 막내자녀 연령을 조사한 결과 7세 이하가 8.6%, 8세-13세의 경우가 53.1%로 가장 많았고, 14-19세는 36.7%, 20세 이상은 1.6%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하위 영역별 각 만족도의 수준

경제적 우려, 재정 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의 대체적인 수준은 <표 1>과 같다. 응답자 주부들의 경제적인 우려는 중간 점수인 16점을 약간 상회하며, 재정적 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중간 점수(각 18점, 44점)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주부들이 느끼는 경제적 복지감 또는 생활 만족감은 다소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 변수, 계획행동유형이 만족도 변수에 미치는 효과

만족도 변수에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 변수, 계획행동유형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회귀분석을 위해 우선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절대치 .40미만의 관계를 보이며, 주부의 연령과 막내자녀연령,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 가계소득과 금전자원적정지각 등이 .60미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변수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우려는 배제된다.

먼저 산출변수인 경제적 우려, 재정 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독립변수들은 의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F-검증). 이것을 각 만족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우려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변수는 주부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주거자원 및 금전자원에 대한 자원적정지각, 목표중심적 계획행동유형, 제약적 계획행동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부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주거자원 및 금전자원에 대한 적정지각, 목표중심적 계획행동유형은 경제적 우려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제약적 계획행동유형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인지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관리에 있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자원으로서의 지각능력 또는 자원의 대안적인 활용 모색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우려를 낳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계소득, 금전자원의 자원적정지각은 경제적 우려에 중요한 변수로 드러났다. 그리고 특히 가계소득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지각이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Lewin(조영희, 1991 재인용)이 지적한 것처럼 인간의 행동은 객관적인 현실에 의해서 보다는 객관적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같은 소득이라도 가족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행동은 달라질 것이다. Buehler와 Hogan(1986)의 연구에서는 금전자원에 대한 자원적정지각만이 영향을 미칠 뿐이고 가계소득은 경제적 우려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 도시가계에 있어서 주거자원은 그 긴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거자원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 자원의 배분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우려로

<표 1> 각 만족도의 수준

만족도	범 위	평 균	표준편차
경제적 우려	8-24	19.31	4.02
재정 만족도	6-30	17.32	3.98
전반적 생활만족도	11-77	36.86	10.43

직결될 것이다. 계획행동유형에 있어서 목표중심적 유형과 제약적유형이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목표중심적유형의 경우 체계적 안정 유지를 추구함으로써 경제적 우려를 감소시키는데 관련될 것으로 보이며, 제약적인 유형을 취할 때 경제적인 우려가 커지는 것은 제약된 자원으로 현재의 요구와 미래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자원을 배분해야 할 경우에 그 가족은 경제적인 우려를 더욱 많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경제적 우려의 총분산의 36%로 나타났다.

재정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볼 때 가계소득, 주거자원·금전자원·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자원적정지가, 자원중심적 계획행동유형은 정적인 관계를, 제약적 계획행동유형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재정 만족도의 경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금전자원 적정지가 변수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 및 주거자원 적정지가 변수도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관리행동유형에 있어서는 자원중심적 유형을 사용하는 주부의 경우 재정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요구구조를 유지하고자 자원을 대체하고 창출하는 등 적극적 관리행동을 할 때 관리기능이 효율화되고 재정 만족도가 그 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약적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

〈표 2〉 만족도 변수에 대한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변수, 계획행동유형의 회귀분석 결과(회귀계수)

(N=560)			
독립변수	경제적 우려	재정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주부의 연령	.01	-.05	-.01
주부의 교육수준	-.13*	-.05	.08
주부의 취업상태	.03	-.08	-.10*
자녀수	.01	.03	.03
가계소득	-.17**	.18***	.03
막내자녀연령	.01	.03	.03
내구재보유수	.01	.06	.04
자원적정지가 변수			
주거자원	-.15**	.14***	.23***
건강자원	.07	-.03	-.10
시간자원	.06	.07	-.06
금전자원	-.30***	.42***	-.08
대인적자원	.07	-.04	.19***
지식자원	.03	-.04	.04
지역사회자원	.01	.12**	.14**
계획행동유형			
자원중심적	-.06	.10*	.03
목표중심적	-.10*	.03	.04
제약적	.09*	-.10*	-.06
F	14.84***	22.97***	12.78***
adjusted R ²	.36	.46	.32

* p <.05 ** p<.01 ***p<.001

원의 부족으로 소비수준, 자산수준, 저축수준 등이 낮아 재정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다. 독립변수들은 재정 만족도 총분산의 46%를 설명해 주고 있다.

전반적 생활만족도는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어 가계경제 측면의 경우와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주부의 취업상태, 주거자원·대인적자원·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자원적정지각이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중 주부의 취업상태는 부적적으로 나타나 전일제 취업주부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자원, 대인적자원, 지역사회자원이 적정하다고 지각할수록 생활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생활만족도의 설명에 특히 주거자원이 우선적인 중요 변수임을 볼 때 도시가계에서 주거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친구·친척·이웃 등 사회적 지원이나 심리적인 유대와 같은 대인적 자원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핵가족화되어 있는 도시가계에서 사회적인 관계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환경 또한 생활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Buehler와 Hogan(1986)의 연구에서는 친척들의 사회적 지원이 사회심리적 만족에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계획행동유형은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독립변수들은 생활만족도의 총분산의 32%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관리체계의 과정요소로서 기능하는 계획행동유형은 경제적 우려, 재정 만족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원중심적 행동 유형은 재정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 관리행동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3. 계획행동의 독자적 효과 분석

체계적 모형에서 계획행동은 과정요소로서 기능함으로써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연결하는 구조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계모형에서 세 독립변수(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변수, 계획행동유형)가 모두 포함된 완전모형과 계획행동유형이 제외된 축소모형에서의 세 산출변수 각각에 대한 설명력의 변화

〈표 3〉 만족도 변수의 설명에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변수, 계획행동유형이 독자적으로 기여하는 정도

변 수	R ² 의 변화	F
경제적 우려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04	17.86***
자원적정지각 변수	.14	22.36***
계획행동유형	.02	13.73**
재정만족도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03	28.16**
자원적정지각 변수	.15	36.71***
계획행동유형	.01	13.67***
전반적 생활만족도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01	7.67***
자원적정지각 변수	.20	21.68***
계획행동유형	.01	17.12***

: 누락되지 않았을 때 경제적 우려의 경우 R²는 .36, 재정만족도의 경우 .46, 전반적 생활만족도의 경우 .32였음.

** p<.01 ***p<.001

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다른 두 개의 독립변수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시켰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행동이 빠짐으로써 각 하위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계획행동유형이 투입과 산출의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체계모형이 구성됨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와 자원적정지각 변수의 경우도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자원적정지각 변수의 경우 가장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자원적정지각 변수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계획행동유형은 체계모형의 변환 변수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른 두 독립변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기여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 주부들의 가정관리에 있어서, 개인 및 가족관련 변수, 자원적정지각 변수, 계획행동유형, 만족도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체계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행동유형이 투입요소인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 변수와 산출요소인 만족도 변수를 매개하는 변환과정 요소로 기능함으로써 체계모형이 지지되었다. 이에 의미있게 관련되는 계획행동유형 변수를 살펴보면, 목표중심적 계획행동유형을 했을 때 경제적 우려를 감소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제한된 자원을 인식하여 가족의 요구구조를 수정하는 보다 안정지향적인 계획행동을 했을 때 미래의 가계경제에 대한 우려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원중심적 계획행동유형을 했을 때 재정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족의 요구를 달성시키고자 가정관리자가 자원의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관리행동을 취했을 때 가계 재정 만족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결과는 가계경제의 개선을 위한 소비자교육이나 가정관리 교육프로그램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행동으로서의 자원중심적 계획행동유형의 유용성을 제시함으로써 가족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약적행동유형은 경제적 우려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재정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것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계획성이 결여된 제약적 계획행동은 가족이 요구구조의 변화이든 자원구조의 변화이든 변화기제 속에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가계의 재정상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행동유형으로서, 만일 행동유형의 구조를 '자원중심적-목표중심적'의 이분법으로 구성했을 때 제약적행동유형과 같은 행동은 수용되지 못하게 되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행동유형의 분류에서 '제약적 행동유형의 설정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만족도 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투입요소로서의 자원적정지각 변수였다. 이것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만족이 결정되기 보다는 행위자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지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 즉 같은 조건이라도 어떻게 지각했느냐에 따라 만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기제가 가정관리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가정관리행동 연구에 있어서 주관적인 자원지각 변수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만족도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경제적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생활 전반에 관한 대체로 비경제적인 측면이다. 그런데 재정 만족도의 경우, 관련변수는 가계소득을 비롯하여 주로 금전자원과 관련되는데 반해, 전반적 생활 만족도의 관련변수는 대인적자원, 지역사회자원 등, 사회적인 관계망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며, 금전자원은 중요한 변수로서 기능하지 않았다. 이것은 물질적 자원의 풍요를 통해서 보다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인 지원이나 심리적인 유대가 만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며 금전과 같은 자원은 그 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또 지역사회의 시설·설비, 공기, 정책 등 지역사회 환경이 만족과 관련되어 가정관리에 환경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관리의 체계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나 그 정도가 약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변환과정요소 즉 계획행동 유형의 척도의 정교화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관리 체계모형이 가정관리행동을 조망하는 틀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에서 다양한 영역의 경험적 과정변수, 즉 계획과 수행, 점검, 촉진 등에 다양한 실천적 변수를 발견하여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구혜령 · 이기영 · 조영희, 도시주부의 계획행동유형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992, 191-205.
- 2) 김연정 · 김순미, 체계론적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91, 103-117.
- 3) 김외숙 · 이기영 · 최은숙, 가정관리학, 방송통신대학, 1990.
- 4) 두경자, 가정관리체계모형의 실증적 검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5) 양정선 · 김순미,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0(1), 1992, 237-255.
- 6) 장상희 · 홍동식, 사회통계학, 서울:박영사, 1984.
- 7) 조영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8) 조영희, 자원적정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91, 241-251.
- 9) 최동숙,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10) 최호숙 · 문숙재,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연구 — 갈등관리행동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75-94, 1991.
- 11) 홍두승, 사회조사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1987.
- 12) Alexander, E.R., Approach to Planning-Introducing Current Planning theories, Concept, and Issues, Gordon And Breach Science Publishers, 1986.
- 13) Andrews, F.K. and Stephen B. Withey,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Plenum, 1976.
- 14) Beard & Firebaugh, Morphostatic and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HERJ 6(3), 1978, 192-205
- 15) Borg, W.R., Educational Research(5th ed.) N.Y.: Pitman Publishing Inc. 1989.
- 16) Buckley, W, Sociology and Modern system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7.
- 17) Brown J.J., Heltsley, M.E. & Warren, R.D., Planning in low income families, HERJ 11(1), 1982, 67-75.
- 18) Buehler & Hogan, Managerial functioning in single parent, In S. Nickols(ed.), Proceeding of the Family Economics/Home Management Section of AHEA, 1985, 170-180, Washington, D.C.: AHEA.
- 19) Buehler & Hogan, Planning styles in single parent families, HERJ 14(4), 1986, 351-362.
- 20) Crawford, C.E. & I.F. Beutler,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consumer resource management, JCSHE 7, 1983, 45-58.
- 21) Davis & Helmick,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HERJ 14(1), 1985, 122-131.
- 22) Deacon & Firebaugh, Family Resource Management(2nd eds.), Allyn & Bacon 1988.
- 23) Gross, Crandall, and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980.
- 24) Guadagno, M.A.N., A systems approach to family financial management: Implications for family research, Pater presented at the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Milwaukee, 1981.
- 25) Heck, R.K.,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research model. JCS&HE 7, 1983, 117-135.
- 26) Maloch & Deacon, Proposed Framework for

- Home Management, JHE 58, 1966, 31-35.
- 27) McCaskey, M.B., A Contingency approach to planning: planning with goals and planning without goal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7(2), 1974, Melson, G.E., Family and Environment, Burgess Publishing co., 1980.
- 28) Newton, Delois Lindsay, Managerial Behavior,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Managerial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Iowa State University Thesis, 1979.
- 29) Olson, McCubbin, Families, Sage publications, inc., 1983.
- 30) Paolucci, Hall & Axinn, Family De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7
- 31) Rice & Tucker, Family Life Management(6th ed.) Macmillan Publishing Co., 1976.
- 32) Rowland, Doddler, and Nickols,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 Development of a Scale, HERJ 14(2), 1985, 218-225.
- 33) Rubio, Maria de Lourdes, Planning Behavior, Life Satisfaction, and Locus of Contro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 1987.
- 34) Sztompka Piotr, System and Function Toward a Theory of Society, Academic Press, 1974.
- 35) Swanson, B, Introduction to Home Management, New York: Macmilan, 1981.
- 36) Titus, P.M., A.M. Fanslow & T.K. Hira,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es, HERJ 17(4), 1989, 309-317.
- 37) Wihlem, M.S., D.R, Iams & J. Rudd, Husband and wife agreementon indicatorsof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s well-being, HERJ 16(1), 1987, 13-22.